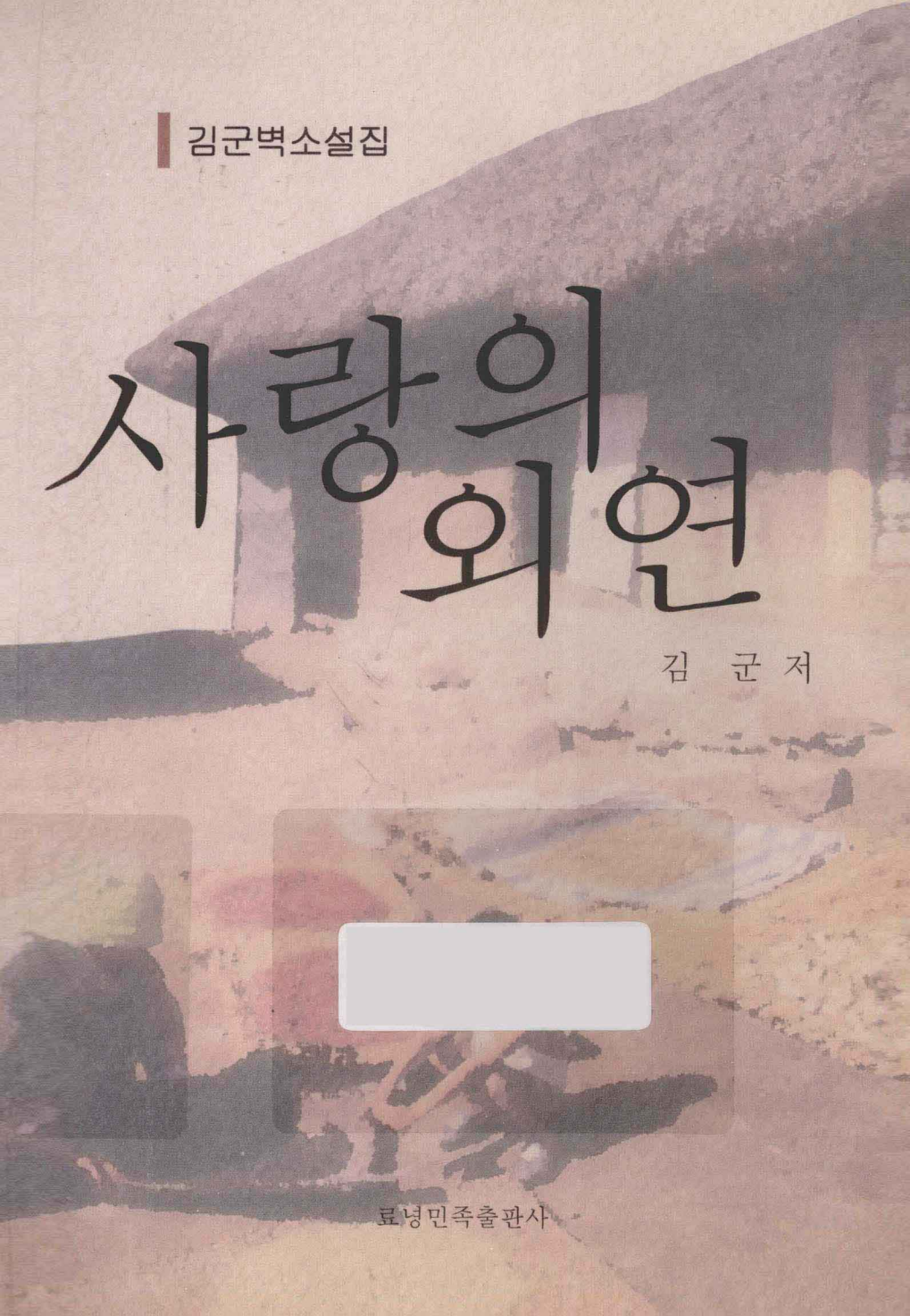




김군벽소설집

사랑의 외연

김 군 저

료녕민족출판사

김군벽소설집

사랑의 외연

김 군 저

료녕민족출판사

© 金真秀 2006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爱情的外延：金真秀短篇小说集/金真秀著.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06.12

ISBN 7-80722-300-6

I. 爱… II. 金… III. 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7.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145996号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刷者：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140mm×203mm

印 张：7.5

字 数：160千字

印 数：1-500

出版时间：2006年12月第1版

印刷时间：2006年12月第1次印刷

责任编辑：权春哲 金慧连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边京爱

定 价：20.00元

联系电话：024-23284348

邮购热线：024-23284335

E-mail: lnmz@mail.lnpgc.com.cn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承印厂调换。

혀 짜른 소리

(작가의 말)

먼저 저의 벽소설집의 출판에 후원을 주신, 한번 만나 뵈지도 못한 한국 박교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뭐, 별것도 아닌 짜른 소설집을 내면서…길게 얘기할게 없어 혀 짜른 소리 몇마디 합니다.

짜른 소설은 사금을 이는 예술이고, 소설 왕관우의 진주이고, 심산속의 보석이고, 창해속의 진주라는 우리 나라 짜른 소설대가들의 말이…저의 짜른 소견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이 순간, 저는 저의 짜른 소설의 터발이 되어준 《료녕 조선문보》의 《압록강》과 《압록강》터발의 도사이시던 김광명선생님, 저의 짜른 소설창작에 그냥 힘이 되어주신 작고하신 박화선생님, 그리고 박성군선생님, 정철선생님, 림원휘선생님, 박병대선생님, 김원달선생님, 김순화선생님…친구 문인들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2 김군벽소설집 ● 사랑의 외연

그리고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신고하신 료녕민족출판사
여러 편집선생님과 저의 짜른 소설집 출판을 위해 마음을
조여주신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저 자

2006. 11. 9

차/레

혀 찢른 소리(작가의 말) / 1

사랑의 외연 / 1

농부의 안해 / 4

외설 / 9

유산 / 11

스프링코트 / 15

화장 / 18

할머니의 사랑이야기 / 21

백치조카 / 25

보리고개 / 28

꿈이야기 / 31

아빠트의 고독 / 33



2 김근벽소설집 ● 사랑의 외연

속죄 / 37 ·

《외지녀자》 / 40

연갱단(延更丹) / 44

환향녀 / 51

목도리=안해 / 54

후김 빠진 고향 / 58

남북차이 / 61

뒤모습 / 64

락수물 듣는 소리 / 66

뭉개진 혼사 / 68

보람 / 71

아저씨란 사람 / 74

어미거미 / 78

여름타는 녀인 / 82

연출 / 85

올가미 / 89

출장간 안해 / 92

과종만 하는 사람 / 95

거북과 토끼의 경주 / 100

심양사람 / 104

답안은 없다 / 108

곽밥아줌마 / 111

투계 / 116

어느 하루 / 121



복순할머니, 똥개 / 126
심양아줌마(《심양사람》속편) / 131
절교 / 136
《머슴군》의 아들 / 139
칼로 물베기 / 141
돈트집 / 144
환갑잔치뒤 / 148
오쟁이 진 마음 / 152
해방 / 155
딸부자 / 159
력사의 흔적 / 162
입으로 똥싸다 / 165
원피스 / 169
기다림 / 173
선택 / 175
향수 / 180
한과부 / 184
동냥 / 189
장금 / 193
만족 / 197
꿈자리 / 201
구명설 / 204
부영이 우는 밤 / 208
만난이 / 212



4 김군벽소설집 ♥ 사랑의 외연

❖ 평론

농촌모습을 부지런히 스케치해나가는 사나이/(김례호)216

《화장》 득과 실/(혜성)226

인간 김군과 작가 김군/(장학규)229

작가는 민족과 사회를 포용할줄 알아야 한다/(차경순)233



사랑의 외연

해별이 따갑게 내려쬐는 로천남새시장.

그녀의 얼굴은 해별에 그을대로 그을렸다. 두눈을 굴레 굴레 우글벅작대는 장군들을 바라보는 그녀, 이젠 꽤 늙어 보인다. 녀자 마흔이면 한물 갔지만 그렇다고 무엇이 어떻다는건 아니다. 그저 그 곱던 얼굴이 별에 타고 세파에 부대껴 좀 시들어보인다는게다.

그녀는 발치에 오이, 가지, 고추... 등 속을 모둑모둑 쌓아놓고 고객이 찾아주기를 기다린다. 한근 팔아야 십전 내지 삼십전좌우의 별이다. 그래도 버는만큼 벌어 살림에 보태니 그렇지 남편의 달로임과 자기의 생활보조금으로는 이자그마한 현성에서도 살아가기 바쁘다.

《오이 한근에 얼마요?》

그녀의 앞으로 지나던 한 고객이 발길을 멈춘다.

《칠십전요.》

《뒤근 떠줘요.》

《어이, 너네 집에 뭐 있으면 뭘 먹자. 사긴 무슨 쉼 산다구 그래. 처음 오는것두 아닌데.》 고객의 친구인듯한 사람이 조선말로 건네는 말이였다.

2 김군벽소설집 ❀ 사랑의 외연

《채 없이 어디 술이 넘어가던가?》

《술이란건 기실 기분으로 마시잖아. 안그래? 성광이.》

(영?...성광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얼굴을 건뚛 들어 고객을 바라본다.

(어쩌면 그이 이름과...)

성광이란 그녀가 첫사랑을 나누던 그이의 이름이었다. 말이야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십오년이나 긴긴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첫사랑의 이름은 변함이 없었다. 외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첫사랑이 가져다준 즐거웠던 나날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났고 헤여지지 않으면 아니될 모진 고통속에 몸부림치던 나날들이 흥벽에 딱딱 맞혀왔다.

《저, 아주머니 어서...》

《...영?》

고객의 독촉에 정신을 가다듬은 그녀는 인차 저울질을 하였다.

《얼맙니까?》

《어... 한근 반인걸요. 한근값만 주세요!》

《...?》

얼떨떨해 섰던 고객은 한근 값을 치르고는 돌아선다.

《어이, 아는 처진가?》

《생면인걸.》

《머리가 돈게 아니야?》

《그런거 같잖아.》

그녀는 조선말을 주고받으며 걸어가는 성광이란 사람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이는 지금 어떻게 살가? 그리고…)

(1994. 8)

농부의 안해

산토끼나 꿩을 잡으려고 뒤산에 올라가미를 놓던 옛날은 아니지만 옛터 그대로 자리잡은 농경을 주로 하는 조선족동네에 심심찮은 입다심거리가 생겼다.

《그 색시 참 이상해. 나이 사십이 넘도록 가슴띠 한번 안맸다잖아.》

《어머?...왜?》

《거치장스러워 그런대.》

《뭐?》

쌍가마를 두고 하는 말이였다.

어제 저녁 동네에 몇 남지 않은 여자들만의 파티에서 쌍가마가 신나게 춤을 추며 신명을 부릴 때, 한또래인 싱거운 아낙네가 유난히 요동하는 쌍가마의 큰 유방을 주물러주는통에 가슴띠도 매지 않은 쌍가마의 밑이 드러났던거다.

《몇년전 심양에 간 딸년이 쫓싸개를 사다주며 자꾸 띠 보라기에 억지로 한번 써봤더니 답답하고 몸이 근지러워나는거...》

그래서 그걸 처음이고도 마지막으로 써봤다는 쌍가마의 말이 동네에 짹-퍼졌다.

《쌍가마, 너 그것 작지도 않은 젖통말이다, 막 흔들거리다 떨어지면 어찌지? 남편이 그냥 둘가?》

《그까짓! 남편이 마다면 떨어진 그걸 좇는 사내가 있을게 안야, 요즘 떨어진 녀자 조개 주을가고 눈파는 사내가 얼마데.》

이렇게 쌍가마는 남이야 뭐라건말건 자기식대로 그것을 개방시켜두었다.

어느날,

《거, 인젠 몸도 좀 다듬고 화장도 좀 해야지...》

《남자가 별 간섭을,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해나는가보죠?》

쌍가마의 남편은 회초리로 때리고 몽둥이로 얻어맞은 격으로 안해의 이쁜 단장을 한번 보자고 말을 꺼냈지만 본전도 못건졌다.

《그 고양이 쥐잡아먹은 주둥이같이 빨간게 마음을 당기는가보죠?》

《자기만 닥달하는 그런 녀잔 남편시중들줄 몰라요. 그만큼 자기를 아끼거든요. 사실 화장이란 그래요,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얼굴피부를 보호하는 정도면 최상이야요. 옷매무시도 난 편한걸 최고표준으로...》

《별수 없군, 아가씨를 봐도 봐야지 이래가지곤...》

《기분껏! 집이라고 찾아주면 끝!》

쌍가마는 그만큼 탄 녀자들처럼 남편이 외도할가봐 걱정하질 않는다.

《그런 일 있잖아, 걱정해도 그렇고 걱정 안해도 그래.

집이라고 찾아오면 그 남잔 제 몫이야.》

언젠가 외박이 잦는 남편을 두고 걱정하는 한뜨래 아낙 네한테 한 쌍가마의 말이였다.

《남편을 아끼고 가정을 알뜰하게 가꾸는 녀자를 마다 할 남자가 없어. 머리가 돈 사람이면 몰라도… 뭐? 잠깐 실수했다손쳐도 량해라는거 있잖아. 리혼이 식은 죽 먹긴줄 알아?!》

쌍가마는 이렇게 마냥 생활의 적극적면을 택하는 녀자였다.

동네의 아낙네들이 한데 모이면 자랑삼아도 그렇고 진심으로도 그렇고 의례 제 남정의 험담이 많은게 제격이다.

…우리 그 사람은 이날 이때까지 제 양말 한짝 안씻어 봤다는등 아무리 몸이 괴로와도 집안정돈 한번 안해준다는등…

이런 경우 쌍가마는,

《모두 마음가짐때문이야, 아주 사회사람 못되면 한 가정을 알뜰히 맡는것도 녀자된 도리야, 난 밥을 지어도 남편과 딸애의 입맛을 돌구려고 애써. …물론 끼니마다지! 남편과 딸애가 기분 좋게 밥을 먹는걸 보면 내 존재가 대단해져…, 아니 비꼬지마. 난 그만큼 부엌일에 재밌 느껴. …때론 내 몸이 불편하면 우리 남편도 도와나서. 그래도 좀해서는 가마목에 나서지 못하게 해. 지금 도시사람들은 남자녀자가 가무를 공동히 분담하지만 기실은 서로 상대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어. 네가 있어도 되고 내가 없어도 되고말이야. 부부간도 서로 기대는게 있어야 튼실해져! 너네 저 들

깨발 봐. 들개 한대면 바람을 이기냐? 서로 기대니 곳곳이 선걸. 가정도 서로 기대며 가꾸는거야. 내가 부엌일까지 남편에게 뺏기면 내 존재가 그만큼 희미해질거 안야.»

《야참, 너때문에 우리 동네녀자들이…》

아닌게아니라 쌍가마의 이런 개성은 아낙네들이 어찌지 못하는 질투의 상대가 될 때도 있었다. 그런 질투를 야기시킨 장본인은 대개 동네의 남성들이었다.

《잔소리 마, 얼굴에다 잔뜩 바르기만 하면 장땅이냐? 정식이 색시(쌍가마) 봐라, 집뜨락이고 채마전이고…집안거두는 숨썬 못배우냐?》

이런 식으로 동네에 가정싸움이 있을라치면 남정들은 쌍가마를 방패삼아 내세우기가 일쑤였다.

《나 혼자 집이에요? 당신은 손을 삶아놓았어요?!》

《저런! 저게 오늘 또…》

이렇게 부부싸움이 승격되면 나중에는 동네에 벼슬없는 쌍가마가 나서서 조화사업을 해야 했다. 그만큼 동네에 인کم좋은 쌍가마이고보니 동네남정들의 말밥에도 자주 올랐다.

그날도 그랬다.

《어이, 너네 떠 없는 녀자(쌍가마의 별칭) 어떨 때 제일 이빠?》

술 한잔 걸친 동네남정들이 새김질할 때, 한 사내가 쌍가마의 남편에게 묻는 말이었다.

《말해달라나?》

《그래.》

8 김근벽소설집 ❷ 사랑의 외연

못사람들은 뭘 대단한 이야기라도 들을가 해서 쌍가마 남편의 얼굴에 눈길을 박는다.

《난말이다, 내가 일밭에서 돌아올 때 집뜨락 채마전에서 파를 뽑아 다듬거나 풋고추를 따서 손질하는 새하얀 행주치마를 두른 쌍가마가 제일 이뻐. 그러니까 일이 곱다는 속담이 되겠나?》

역시 요즘세월에 듣기 어려운, 농부다운 생활풍경이야기였다.

(2000. 9. 8)